

미국은 지금

트럼프는 사우디에 왜 갔을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US Strategy 김승혁 ocean93@kiwoom.com



Issue Brief

중동 순방을 시작한 트럼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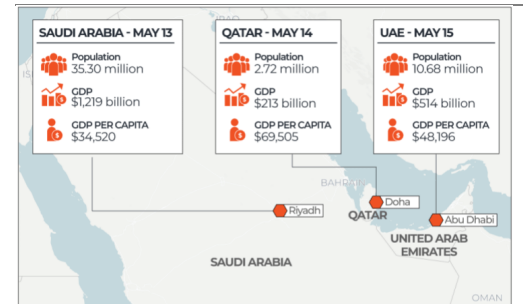
2025 년 5 월 13 일 트럼프의 중동 순방이 시작됐다. 사우디→카타르→UAE 일정이며 16 일 까지 진행되는 일정이다. 동행 CEO 가 화려하다. 테슬라의 일론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황, 오픈 AI 의 샘 올트먼,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등이 순방길에 동참했다. 사우디의 실질적 통치자인 빈살만 왕세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방문 당시에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지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는 전투기로 호위까지 한 뒤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다. 카슈끄지 사건으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던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는 부분이다.

과거 미국의 사우디 순방과 지금의 순방에는 목적의 차이가 있다. 2017 년 트럼프 1 기 사우디 방문 당시에도 1,100 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순방에도 1,420 억 달러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만큼 사우디 순방에서 에너지 및 방산 협력은 핵심 의제 중 하나이다. 다만, 차이는 AI 부문에서 발생했다. 이번 사우디 순방에서 빈살만 왕세자는 1,000 억 달러의 IT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사우디의 AI 기업 휴메인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공급 계약을 맺었다. 과거 안보와 에너지에만 치중되었던 경제 협력이 AI 로 무게중심이 일부 이동한 것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방문(2008 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두 차례 방문(2014 년, 2016 년) 당시에도 방산업체 및 에너지 기업이 주인공이었다.

AI 에 진심모드인 사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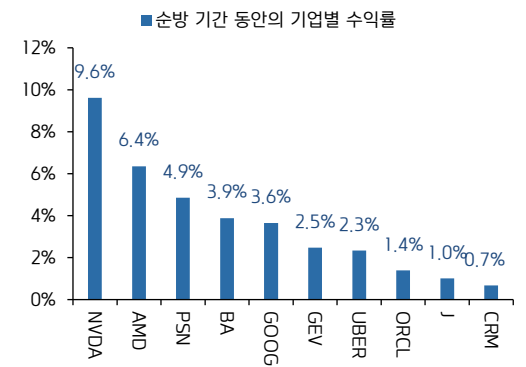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는 비전 2030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의존적인 자국 경제 구조를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전 2030 프로젝트는 2016 년 시작되었으며 비 석유 부문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에는 자동차, 관광, 부동산, 항공, 전기전자 등의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비 석유 부문 기업들은 그동안 사업 준비 단계에 있었으나, 2025 년 이후에는 공개적인 파트너 발굴 혹은 발주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평가받고 있다. 실제 2024 년 사우디의 비 석유 부문은 GDP 내에서 사상 처음으로 과반 수준인 49.9%를 기록했고, 데이터센터와 같은 AI 인프라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타이밍에 트럼프가 중동 순방을 시작한 것이다. 중국 이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실제 중동은 AI 확장에 진심인 만큼 미국 빅테크 기업에게 큰 손이 되어줄 수 있다. 어떠한 약속이 이번 순방에서 오고 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중동 순방을 시작한 트럼프



자료: 언론보도

중동 순방 기간 동안의 수익률 변화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중동 순방 중 수혜를 본 미국 기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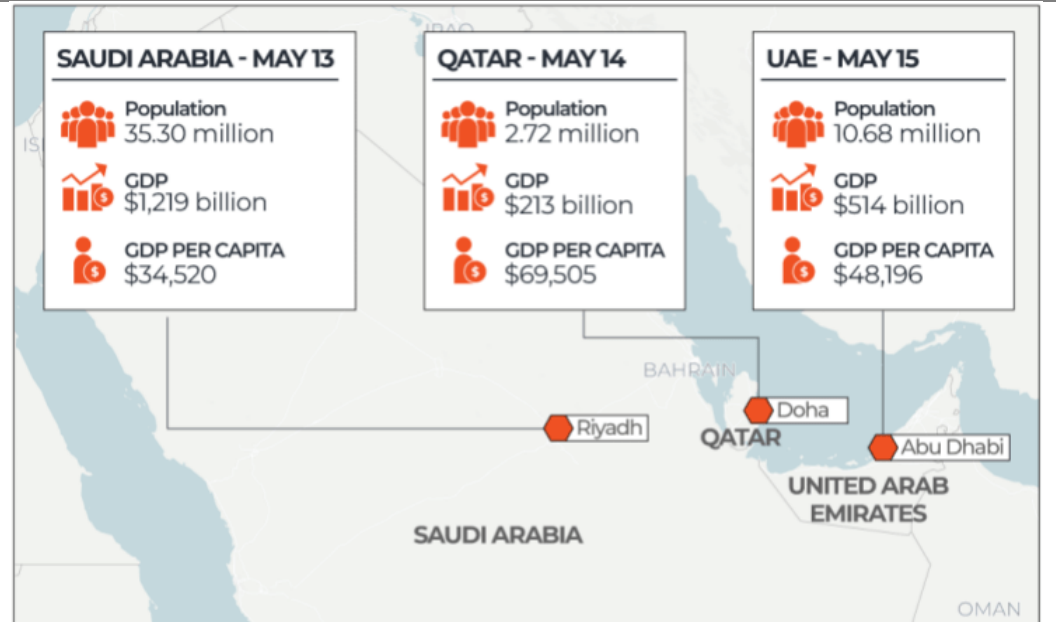
사우디가 미국에게 약속한 투자 금액은 6,000억 달러이다. 여기에는 1)AI 및 전력 인프라 투자 1,000억 달러, 2)방산 1,420억 달러, 3)에너지 142억 달러, 4)항공 48억 달러, 5)헬스케어 58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광물, 우주, 에너지 분야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혜를 본 기업 역시 존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일은 엔비디아(NVDA)가 이루었다. 엔비디아는 빈 살만 왕세자가 세운 AI 기업 휴메인과 'GB300 블랙웰' 칩 1,800개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액수로 환산하면 약 7.85억 달러 수준이다. GE Vernova(GEV)는 142억 달러의 수출 계약을 따냈고 발전 설비, 가스 터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Boeing(BA)은 사우디 항공사인 Avilease과 58억 달러 수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해 20대+10대(옵션)의 737-8 항공기를 수출하기로 했다. 또한 Google(GOOG), Oracle(ORCL), Salesforce(CRM), AMD(AMD), Uber(UBER) 등은 총 800억 달러의 공동 기술 투자에 합의하여 사우디의 AI 및 첨단 인프라 사업에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Hill(GSI로 인수), Jacobs(J), Parsons(PSN)과 같은 건설사 역시도 20억 달러 수준의 사우디 인프라 건설 수주에 참여했다. 미국 판 일대일로가 사우디에서 시작된 것이다.

물론 “중동” 순방이기 때문에 사우디에서만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두 번째 방문지인 카타르에서도 양국은 2,435억 달러 수준의 경제 계약을 체결했다. 1)항공 및 우주 산업 960억 달러, 2)방위 산업 410억 달러, 3)첨단 인프라 설계 산업 970억 달러 등이 대표적 체결 사례이다. Boeing은 GE Aerospace의 엔진이 탑재된 787-777X 항공기를 최대 210대까지 발주하기로 계약했고 미국 정부는 카타르와의 협력 과정에서 연간 15.4만 개의 미국 내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 일정인 UAE에서도 경제 협력 체결은 지속되었다. UAE는 향후 10년간 미국에 1.4조 달러 규모의 반도체, AI, 에너지, 제조업 분야 투자 계획을 밝히며 기술 프레임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트럼프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한했던 미세회로, AI 칩 관련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옵션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엔비디아가 첨단 AI 반도체 칩 50만 개를 매년 UAE에 수출하는 예비 합의가 맺어졌다는 내용이 공개되었다.

중동과의 협력이 미국에 가져올 장단기 영향력

이번 순방 의의는 1)소원했던 중동과의 관계 개선, 2)첨단 AI 및 방위 관련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수요처 확보, 3)체질을 개선중인 중동 확인 등이다.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중동 확보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했고, 의도한 대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 중동 순방 기간(25.05.13~25.05.16) 동안 동행했던 기업들 중 엔비디아는 +9.6% 오르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같은 하드웨어 중심 기업인 AMD는 +6.3% 올랐다. 한편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 중에서는 구글 +3.6%, 오라클 +1.4%, 세일즈포스 +0.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드웨어 보다는 덜 오른 모습이다. 사우디와 카타르 모두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보잉은 +3.9%로 하드웨어보다는 조금 부진하지만 소프트웨어보다는 긍정적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작년의 미국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AI가 처음 도입되는 시점에는 먼저 데이터센터 및 전력 설비 등의 인프라가 마련 되어야 한다. 2024년 GPU에 대한 초과수요가 관찰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중동은 AI 산업 기틀을 이제부터 마련하고자 한다. 그 첫 단계에서 GPU 및 데이터 센터와 같은 하드웨어 분야의 우선적 성장에 예상된다. 전력 및 에너지 부문은 중동 자체적으로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첨단 반도체 및 장비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고 중국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중동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관계 속 AI 인프라 구축 단계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 만약 인프라 확충이 완료된 경우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차례가 돌아갈 것이다. 기간에 따른 수혜 산업 및 기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트럼프의 중동 순방길



자료: 언론보도

중동 순방길에 동행한 미국 기업

이름	소속 기업	직책
일론 머스크	Tesla, SpaceX	CEO
젠슨 황	NVIDIA	CEO
샘 올트먼	OpenAI	CEO
마크 저커버그	Meta	CEO
앤디 재시	Amazon	CEO
래리 핑크	BlackRock	CEO
스티븐 슈워츠먼	Blackstone Group	CEO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CEO
알렉스 카프	Palantir	CEO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미국 - 사우디 간 체결된 경제 협력 금액

분야	금액	방향
총 투자 약속 규모	6,000 억 달러	—
에너지	142 억 달러	미국 → 사우디 수출
항공 방산	48 억 달러	미국 → 사우디 수출
헬스케어	58 억 달러	사우디 → 미국 투자
AI - 데이터센터 및 인프라	200 억 달러	사우디 → 미국 투자
AI - 공동기술 투자	800 억 달러	미국 → 사우디 투자/협력
인프라 펀드	20 억 달러	미국 → 사우디 수출
에너지 펀드	50 억 달러	사우디 → 미국 투자
항공 방산 펀드	50 억 달러	사우디 → 미국 투자
스포츠	40 억 달러	사우디 → 미국 투자
방산	1,420 억 달러	미국 → 사우디 수출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미국 - 사우디 간 체결된 경제 협력 세부 항목

분야	세부 내용
AI/데이터센터	DataVolt, 美에 200억 달러 규모 AI 데이터센터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술 투자	Google, Oracle, Salesforce, AMD, Uber 등 총 800억 달러 공동 기술 투자
인프라	美 기업 (Hill, Jacobs, Parsons 등) → 사우디 인프라 건설 수주 (20억 달러)
에너지 수출	GE Vernova 가스터빈·에너지솔루션 수출 (142억 달러 규모)
항공기 수출	Boeing 737-8 여객기 → AviLease에 48억 달러 규모 수출
헬스케어	Shamekh IV Solutions → 미시간주에 IV 수액공장 등 58억 달러 투자
산업별 펀드	- 에너지 투자 펀드: 50억 달러
	- 항공·방산 기술 펀드: 50억 달러
	- 글로벌 스포츠 펀드: 4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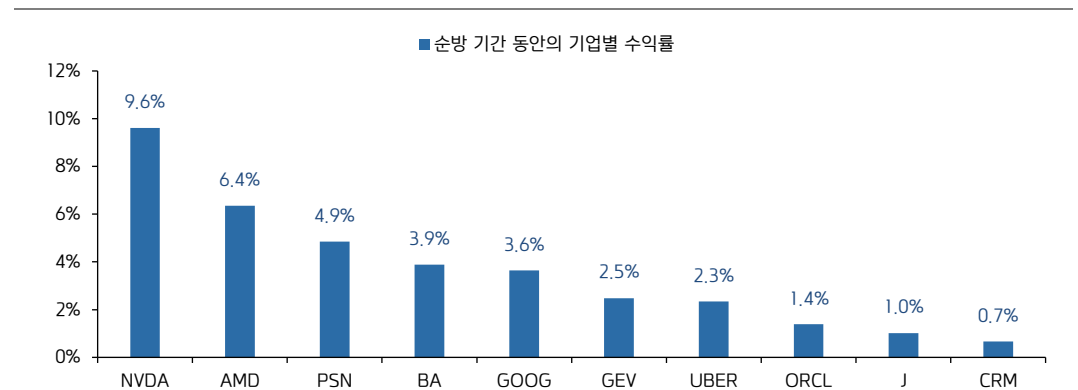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미국 - 카타르 간 체결된 경제 협력 종류 및 금액

산업 분야	금액	비고	세부 항목
항공기·우주산업	960억 달러	美 항공기 제조 최대 수출 계약	Boeing 787/777X 항공기 210대 + GE 엔진
에너지 인프라	85억 달러	카타르 LNG 확장 사업	McDermott 해양 LNG 인프라 7건
인프라·엔지니어링	970억 달러	고급 기술·설계 수주	Parsons 프로젝트 30건
첨단기술·양자산업	10억 달러	양자기술 및 인력개발	Quantinuum-AI Rabban JV
방위산업 (드론 요격)	10억 달러	FS-LIDS 수출, 카타르 최초 해외 고객	Raytheon (드론 요격 시스템)
방위산업 (UAV)	20억 달러	정찰·공격 겸용 UAV	General Atomics (MQ-9B 무인기)
방위산업 (의향서 포함)	380억 달러	방공·해양안보 포함, 잠재 계약	국방 투자 의향서 (알우데이드 기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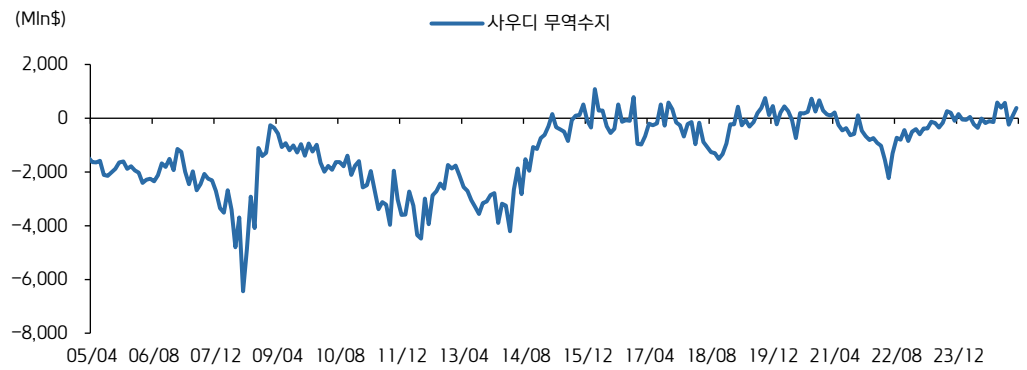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미국의 중동 순방 기간 동안의 기업별 수익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미국의 중동 순방 기간은 25.05.13~25.05.16

미국 - 사우디 무역수지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미국 - 카타르 무역수지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